

리빙브레드 타일랜드 미션 9월 선교편지

주안에서 모두 강건하신지요?

김대희 목사님의 소천..

교회와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치앙라이에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 깊이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저희몹을 감당하며 살다가 저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완전한 평강의 나라에서 목사님 다시 뵙겠습니다.

1.가스펠홈: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악기도 열심히 배우고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쓰기와 일기쓰기도 억지가 아니라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몸과 같이 마음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지길 기도합니다.

가스펠홈 예배에 이웃분들이 꾸준히 나오십니다. 모세가 아카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들의 삶에 믿음에 대한 소망이 심어지고 가스펠홈을 통한 예배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오가 4학년 마지막 인턴십을 도이 산티 재단 사역과 함께 하면서 아카족 아웃리치 사역을 모세부부와 함께 합니다. 다오와 같은 청년들과 함께 소수민족 복음전도 사역을 함께 할수 있게 된것이 저희에게 기쁨입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한국 단기선교팀이 가스펠홈을 방문했습니다. 팀셔츠가 필요했는데 셔츠를 선물로 주셨고 저희는 준비했던 구슬팔찌와 축복송으로 화답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베이킹 클래스:

위앙빠빠오 반꾸학교에서 성경암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태국은 무엇을 하든 선물 추첨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했고, 아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외웠습니다. 선교사들의

함력으로 섬기는 이 학교에 복음의 씨가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서 복음의 전초지 역할을 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간증이 있는 간절히 바랍니다.

3. 랩 사역:

필요할때마다 베이킹 클래스를 마친 현지인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그들의 재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가지 비전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 제약도 있고 때를 기다려야 할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유익앞에 먼저 내려놓는 섬김과 공감도 필요합니다

3. 근황:

전해드리고 싶은 말과 기도의 내용이 많아 늘 선교 편지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솜폼에 익숙한 시대에 부담이 되는것 같아 전하고 싶은 말과 내용은 줄이고 사진은 동영상으로 보냅니다. 많은 말보다 리빙브레드와 함께 하는 삶을 담은 동영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안약으로 치료하던 고정욱 선교사의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 백내장 수술을 받고 계속 팔로우업중에 있습니다. 수술후 세포생성을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이 남았는데 눈의 상태에 따라 언제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과 함께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등 그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둘째 아들 유진이가 10월에 한국방문하는데 6년만에 만나게 됩니다. 눈수술후 회복과 다른 치료들을 잘 받고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한국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일정을 끝내고 치앙라이에 들어가면 곧 동라와 아웃리치 랩사역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또 한해를 보낼 준비를 하면서, 리빙브레드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들의 삶에 온전한 살롬을 전합니다!

고정욱 고경미 선교사 드림
리빙브레드 치앙라이
타일랜드 미션